

이제 安定을 뒤흔치자

>2<

激戰은 끝나고... 다시 出發點에 선 政治·社會

지난 11월 25일 장영자 서울대 교수를 만난 것은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식 때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사회

학계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보면, 장영자 교수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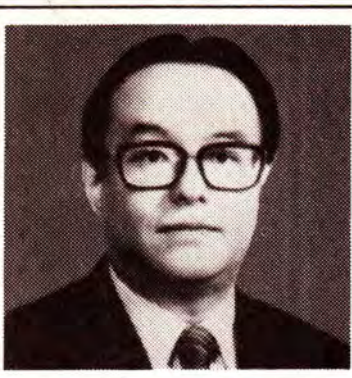
한국의 정세는 전적으로 변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보면, 장영자 교수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보면, 장영자 교수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보면, 장영자 교수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었다.



◇나카지마 미네오 (中崎嶺雄) 교수 略歷
▲마쓰모토(松本)시 출신·51세 ▲도쿄(東京)외국어대 중국어과 졸업, 도쿄대에서 박사학위(사회학) ▲현재 도쿄외국어대 교수(국제관계론·현대 중국론)

儒教 문화권의 새 牽引役 기대 「3金」은 過去人物...갈등 克服을

海外視角: 나카지마教授 (東京外國大)

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세계 불화의 시기에 한하여 10% 전 후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 미 국과의 무역증진과 민족자존기를 높이고 있으며 TIGERLAND (타이완)의 경제발전후의 성장세를 남북사계 발전하고 있다.

이제나 한이 무엇이냐 유 민족자존의 진정성이론자로서 세계를 향한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시대로 발전하고 있는 것

이 시점에서 보면, 장영자 교수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안양과 성수의 단계 발전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한미의 이미 그 선례를 찾아볼 수 있다. 장영자 교수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보면, 장영자 교수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었다.